제354회국회
(정기회)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 8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7년9월22일(금)

장 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준비 관련 현안보고
   가. 문화체육관광부
   나. 강원도
   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상정된 안건

1.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준비 관련 현안보고 ····· 2
   가. 문화체육관광부
   나. 강원도
   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10시06분 개의)

○위원장 황영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대부분의 상임위가 일정 없이 또 지역구 활동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위 위원님들께서 회의에 많이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동계올림픽 G-140일입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동계올림픽 개최 상황을 점검하고 우리 국회 차원에서 또 지원할 것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사전에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과 관련된 여러 염려의 목소리들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개·폐회식 총감독을 맡고 있는 송승환 감독을 사실은 국회에 출석시키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측과 조직위원회 측에서 개·폐회식은 모든 행사가 비공개로 준비되고 있어서 혹시 공개된 회의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듣고서 저희 국회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은 협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출석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현재 개·폐회식 장소가 오픈되어 있는 장소기 때문에 개·폐회식이 악천후라든지 등등에 대비해서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는지, 정말 이런 염려가 기우가 아닌지 등등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추후에 필요하다면 총감독을 비롯한 개·폐회식에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등을 준비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및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동계올림픽 대회 준비 상황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입법조사관 정홍진 입법조사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황영철 존경하는 유은혜 위원님께서 우리 동계특위에 새로 보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유은혜 위원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도 평창올림픽에 많은 관심과 점검들을 하고 있는 터에 또 이렇게 평창특위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평창특위에서 해야 할 역할들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영철 해당 상임위에서 큰 역할을 해주신 분이 특위에 오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에 강원도의 최문순 도지사께서 2017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참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신 송석두 강원도 행정부지사가 출석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준비 관련 현안보고

가. 문화체육관광부

나. 강원도

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10시11분)

○위원장 황영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준비 관련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특히 오늘 특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도종환 장관님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특위에 처음 출석하는 회의입니다. 뜻이 깊다고 생각하고요.

장관님께서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입니다.

존경하는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창올림픽을 140일 앞둔 오늘 위원님들께 그동안의 올림픽 준비 상황과 현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문체부에서 평창올림픽대회 붐업(boom up)과 경기력 향상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조직위원회에서 평창올림픽대회 준비 상황을 보고드리고 강원도에서 개최도시 손님맞이 준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대회 붐업 방안입니다.

내년 2월 올림픽대회 전까지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국민들의 평창올림픽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창올림픽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아직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남은 기간 동안 조직위, 강원도와 함께 홍보 협력을 보다 강화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전방위 홍보에 나서겠습니다. 이를 전담하기 위해 9월 4일 신설된 평창올림픽지원단을 중심으로—저희 부에 신설된 지원단입니다—강원도, 조직위, 관광공사, 언론진흥재단 등으로 구성된 평창올림픽 홍보기획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변인협의회와 행안부 평창올림픽 중앙·지방협력단 등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홍보 협의체를 통하여 협업 홍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입니다.

홍보예산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금년은 추경예산 563억 원, 내년 예산은 80억 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문체부, 강원도 그리고 조직위는 홍보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집행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고 대회 붐업을 확산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단체들과 함께 올해 852억 원 규모의 문화올림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최도시를 비롯하여 전국 일대와 세계 주요 도시를 무대로 민속·음악·미술·무용·공예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 세부 홍보계획입니다.

먼저, 국내외 방송, 신문, 온라인, 옥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9월부터 10월까지는 언론·광고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홍보 킬러콘텐츠를 개발하여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170여 개국에 대한 해외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컨대 APEC 정상회의 등 정상외교 시에는 CNN, BBC, NHK 등 영향력 있는 매체를 활용

하여 올림픽 광고를 집중적으로 송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광판, 극장, 주요 고속도로 등에 옥외광고를 설치할 예정이며 전국 주요 공항과 철도역 등에는 국민들이 올림픽을 체험할 수 있는 홍보체험존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5쪽, 계기별 연계 집중 홍보입니다.

추석 연휴, 성화 봉송 기간 그리고 G-100일 등을 주요 계기로 활용해서 전 국민이 올림픽에 대해 알고 있고 체험할 수 있는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9월 30일부터 시작되는 10일간의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올림픽이 가족 간의 대화 주제가 될 수 있도록 TV 특집 프로그램 편성 지원과 주요 교통망을 홍보 거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11월 1일부터 17개 시도를 100여 일 동안 순회하는 성화 봉송이 전국적으로 붐을 조성하고 우리의 문화관광 자원을 전 세계에 소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겠습니다.

어제는 서울과 뉴욕에서 동시에 열린 올림픽 메달 공개 행사를 했습니다. 국내외 언론의 관심과 취재 열기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입장권 판매, 추석 연휴, G-100일 등 세부적인 홍보계획에 대해서는 6~1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경기력 향상 지원입니다.

올림픽의 매력과 감동을 더하고 대회의 흥행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개최국의 대회 성적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부는 2018년 평창올림픽 종합 4위, 패럴림픽 종합 10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선수단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동계 종목 육성을 위한 노력과 선수들의 활약 덕분에 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 등 빙상 종목에서 세계 정상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켈레톤, 알파인 스키 등 썰매와 설상 종목에서도 메달을 기대할 정도로 경기력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12쪽, 추진체계입니다.

문체부, 대한체육회 등이 참여하는 경기력 향상 지원단을 통해 선수단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초 우리 선수단과 경기단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한 썰매 보관 부지 제공, 선수 귀화, 경기장 시설 보완 등의 건의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전지훈련비, 장비 등 요청사항에 관하여 2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계종목 국가대표를 증원하고 연 240일 이상 훈련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 훈련 예산도 337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쪽입니다.

외국인 코치와 종목별 전담팀 등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훈련시설도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훈련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개최국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경기장 사전 적응훈련을 지원하고 종목별 국외 전지훈련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이스하키, 루지 등 국내 선수가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 선수의 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패럴림픽 선수들에 대해서도 전담팀, 해외 지도자, 전용숙소 및 훈련장 등 지원을 통해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동계 국가대표 훈련정원 및 향후 훈련계획과 패럴림픽 경기력 향상 방안에 대해서는 14쪽과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황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성공적인 올림픽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철 도종환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 송석두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행정부지사 송석두 강원도 행정부지사 송석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 여러분!

늘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성실히 노력해서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원도 소관과 관련해서 7개 분야로 나누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장 및 진입도로입니다.

경기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12개소입니다마는 10월 말까지 준공 목표로 하고 있고 예산과 공정

에 전혀 차질이 없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진입도로도 16개 구간이 11월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숙식 개선 분야입니다.

먼저, 숙박시설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개선 1400개소를 하고 있고 시설 개선도 646개소를 했습니다.

자료를 한번 봐 주시면 전후 비교가, 2쪽부터 개선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업소와 관련해서는 2000개소의 서비스 개선과 552개소의 시설 개선을 하였고,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합리적인 가격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안내해서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매칭을 연결하고 있고 공급을 확대하면서 지도 점검을 통해서 가격 안정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중화장실은 59개소를 개선하였고 전통음식 세계화를 위해서 15년부터 지속 노력을 하고 있고, 대회 운영기간 중에는 K-FOOD PLAZA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관 및 환경 개선 분야입니다.

주요 도로변의 간판 정비를 12월 말까지 완료 목표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 전후 비교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국기는 4개소에 404개를 지금 설치했고, 2개소에 202개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설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버스터미널은 총 7개소를 개선 목표로 해서 3개소는 완료를 하였고 4개소는 지금 10월 말 준공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특구 내 도시경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3개 시군에 16개 사업입니다마는 자료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후 비교해서 많은 개선을 이루고 있고,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신 강릉 전선지중화 사업 등 3개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행사 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개최지역 폐기물 및 배출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분리수거 배출시설 30개소, 그리고 재활용 선별시설 1개소를 설치하면서 대회기간 중에는 쓰레기 기동수거반을 상시 운영해서 깨끗한 올림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교통 분야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대중교통 조정 운행 등을 통해서 수송력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증회와 관련해서는 광역 단위는 일일 대비 71회를 강릉·대관령을 기점으로 한 증회 운행을 하면서 도시 내에는 버스 노선 변경을 하고 공항버스의 57회 증회 그리고 양양공항의 셔틀 40회를 도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택시 부제의 해제 및 인근 도시 주요 숙박지를 운행하는 경기장 연계노선에 72회의 셔틀버스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교통 혼잡 해소 대책과 관련해서는 차량 2부제를 강릉의 동 단위 지역에서는 의무제로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자율로 실시하고 시내버스 무료 운행과 주요 도로 주·정차 관리 등을 통해서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서비스 개선과 관련해서는 버스정류장안내기 36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도로시설 정비 및 제설과 관련해서도 시설물 정비 그리고 표지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되는 제설대책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제설대책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8쪽의 문화올림픽 분야가 되겠습니다.

문화올림픽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올림픽 전후로 한 올림픽 붐업의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G-2년부터 행사를 치러서 G-150일 행사까지 최근에 행사를 치렀습니다.

현재로서는 G-100일 행사를 올림픽플라자 개장과 연계한 중요한 모멘텀을 가지고 다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고 행사는 행사대로 시설 점검과 함께 올림픽 개·폐회식장의 점검과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연계해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공연 프로그램 열 가지, 체험·전시 프로그램 아홉 가지, 올림픽 스페셜 이벤트 일곱 가지, 교류·홍보 프로그램 일곱 가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쪽의 관광 안내 및 상품 개발입니다.

국내외 다양한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서 다국어 '투어강원' 앱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올림픽 숙식안내를 위한 통합 콜센터 운영 그리고 종합관광안내 표지판 502개소의 정비, 관광안내소 확충 7개소 그리고 다국어 관광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배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도와 한국관광공사, 여행사 등을 통해서 협업을 해서 올림픽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고 'Hello! 평창' 등 글로컬 관광상품 육성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번째 분야입니다.

여러 차례 강조하신 홍보·붐업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추경예산 편성과 연계해서 국내외에 매체 홍보를 하고 이어서 각종 이벤트를 통한 오프라인에 올림픽 붐업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원봉사자, 서포터즈, 응원단 등을 통한 참여 활성화 그리고 기타 전방위적인 다양한 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아울러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12쪽·13쪽의 현안과 관련된,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두 가지 현안과 건의사항을 간략히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늘 걱정하시는 대회 시설 사후활용과 관련해서 전문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서 4개의 시설, 스피드스케이팅, 강릉하키센터, 슬라이딩센터, 스키점프를 국가에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방안과 저희들이 지금 동계올림픽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관리 주체를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위 그리고 문체부와 협의해서 사후활용과 관련해서는 10월·11월까지 다각적인 경기단체, 관련 전문가들과 의견을 모아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서 협의도 하고 제도화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13쪽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정선의 알파인 스키장이 가리왕산입니다. 당초 56%를 복원하기로 환경부나 산림청과 협의하에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부분의 생태 복원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환경부나 산림청에서는, 강원도에 이 비용이 현재로서는 대략 한 418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 부분의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소관과 관련된 보고를 간단히 올렸습니다.

늘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사항을 성실히 반영해서 강원도도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 준비 현황과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주요 현안과 대회 준비 현황입니다.

주요 현안입니다.

2쪽의 개·폐회식 준비입니다.

올림픽 개·폐회식은 한국의 전통문화의 정신인 조화와 현대문화의 특성인 융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열정과 세계평화의 메시지를 담는 콘셉트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패럴림픽의 개·폐회식은 패럴림픽 선수들의 열정과 대한민국의 열정이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콘셉트로 준비 중입니다. 현재 출연진 선정이 마무리 단계로 오는 10월부터는 리허설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개·폐회식 행사는 전 세계인과 미디어가 가장 관심을 갖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문화강국, ICT 선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3쪽 개·폐회식 혹한 대책입니다.

개·폐회식 당일 강추위와 강풍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그간 혹한대책 점검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섯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회의와 개·폐회식장 현장에서의 혹한 체험, IOC 의견 수렴 등 혹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검토 가능한 모든 대안을 대상으로 안전성·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지난 6월 3개 분야 10대 과제를 담은 혹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시설 측면에서는 방풍막, 관람객용 히터 등 방

한시설을 설치하고 모든 관람객에게 우의와 무릎 담요, 핫팩 방석, 손발 핫팩 등 방한용품 5종 세트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이어서 따뜻한 커피·차 등을 관람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보안 검색과 수송시간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제설대책, 현지 기상정보 및 혹한 대비책 사전 홍보 등 혹한대책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체부에서는 10월 중에 계획 중인 개·폐회식 혹한대책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결과를 반영해서 관중과 출연진들이 추위와 강풍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역대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 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7쪽 성화 봉송입니다.

올림픽의 성화 봉송은 오는 10월 24일 그리스에서의 채화를 시작으로 국내에서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101일 동안 진행됩니다. 또 패럴림픽의 성화 봉송은 내년 3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진행됩니다.

성화 봉송은 대회 시작을 알리는 공식적인 첫 행사로서 대한민국 전역을 순회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대회를 알리고 참가열기를 확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성화 봉송을 계기로 대한민국 전역이 축제의 장이 되고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킬 수 있도록 감동과 스토리가 있는 성화 봉송을 준비하겠습니다.

8쪽의 올림픽과 패럴림픽 성화 봉송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의 입장권 판매 및 만석 달성 방안입니다.

올림픽 입장권은 지난 6월 온라인 1차 판매를 종료하고 9월 5일부터 온라인 2차 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패럴림픽 입장권은 패럴림픽 G-200일을 계기로 지난 8월 21일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9월 12일 기준으로 올림픽 입장권은 목표 107만 매 대비 25% 수준인 약 26만 매가 판매되었으며 패럴림픽 입장권은 목표 22만 매 대비 0.2% 수준인 405매가 판매되었습니다.

개·폐회식, 빙상 등 인기 종목과 설상·슬라이딩 등 비인기 종목 간의 판매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입장권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올림픽 1차 판매 결과를 분석해서 일반 국민 대상 전략적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극장 광고, 전광판, 지자체 행사 등을 활용해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매가 저조한 비인기 종목 및 패럴림픽 입장권 판매를 위해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및 143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위원장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하였고, 조직위 국장이 17 시도를 직접 방문해서 설명하였고 또 31개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입장권 단체 판매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만석 달성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료 11쪽 올림픽 입장권 판매 일정과 12쪽 입장권 관련 중앙선관위와 권익위원회의 유권 해석 결과 및 유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13쪽 균형재정 달성 방안입니다.

○위원장 황영철 위원장님, 유권 해석 결과를 여기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세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유권 해석 결과는 참고자료 2에 열거돼 있습니다마는 지자체와 교육청은 8만 원 이하의 입장권은 주민들에게 제공 가능하다…… 내년이 지방선거 해입니다. 그래서 선거법 관련해서 해석상의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사업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의 일환으로 소속 주민들에게 8만 원 이하 입장권은 나눠 줘도 좋다,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이 경기장에 올 경우에는 차량을 제공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해도 괜찮다는 내용으로 중앙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공식 후원사의 경우는 5만 원 이하의 입장권을 공직자 등에 제공해도 가능하다는 권익위의 해석을 받은 바가 있고 또 대회 VIP 라운지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VIP 라운지 참석 대상자에게는 관람권 등을 제공하는 것도 괜찮다는 것으로 권익위원회의 해석을 받은 바가 있습니

다.

이 관련 내용은 법조문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상세한 내용으로 저희가 질문과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는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3쪽, 균형재정 달성 방안입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수입은 2조 5000억, 지출은 2조 8000억 수준의 제4차 대회재정계획을 지난 3월 확정하였으며 제5차 대회재정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서는 조직 위 차원의 고강도 자구노력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IOC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서 IOC 지원금도 200여억 원을 추가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IOC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IOC의 지원을 확대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엄격한 사업 심사 및 집행, 구매보다는 임차, 개최도시 자원 활용, 컨설턴트 비용 IOC 부담 등 지출 절감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14쪽, 균형재정 달성 방안입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후원 참여입니다.

민간기업의 올림픽 후원은 9월 현재 목표 9400억 원 대비 96%를 달성하였으며, 공공기관의 후원·기부를 포함할 경우에는 100.2%를 달성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 특히 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서 지난 8월 23일은 공기업 최초로 한전과 후원 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공기관 후원에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 사업 중에서 국가적 성격 사업의 정부예산 반영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력을 했고, 금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특히 1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내년도 정부예산에 48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황영철 위원장님과 동계특위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지원과 협조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올림픽 사업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또 한전에 이어서 여타 공공기관도 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15쪽, 현안사항과 대회 붐 조성입니다.

앞서 문체부장관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정부와 강원도 및 개최도시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함께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오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G20 정상회의, APEC 등 정상외교 또 지금 대통령께서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대회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10월 24일 그리스에서 채화돼서 11월 1일부터 전 국민과 함께하는 성화 봉송이 올림픽 또 패럴림픽 붐업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입장권 판매, G-100일, G-50일 등 주요 계기 활용 국내외 홍보 등 대회 붐업을 위한 홍보활동에 사활을 걸고 추진하겠습니다.

17쪽부터는 대회 준비 현황입니다.

경제·문화·환경·평화·ICT 등 5대 올림픽 실현과 완벽한 대회 운영, 패럴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 그간 추진한 내용과 향후 추진할 계획을 정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평창동계올림픽은 정확히 140일, 동계패럴림픽은 168일 남았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하에 그동안 대회 준비에 매진한 결과 지난 8월 말에 열린 IOC 조정위원회와 또 이달 초 아부다비에서 열린 IPC 총회 또 지난주에 페루 리마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준비사항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각 IOC 위원과 IPC 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은 국민 통합, 국격 제고, 평화 증진의 기회로 매일매일이 디데이라는 각오로 반드시 역사에 남는 성공 올림픽·패럴림픽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철 이희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 과정 중에 특별히 서면으로 대체하겠다고 하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한 것은 대회 입장권 유권해석과 관련된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각 지자체라든지 각 기관에서 아직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입장권 판매에 상당히 유효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유권해석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유권해석이 입장권 판매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직접 보고하게 했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참석하시지 않으신 위원님들은 순서를 넘어서서 참석하신 위원님들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권성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첫 번째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관님, 올림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권성동 위원 다른 부분은 나름 문체부와 올림픽조직위원회, 강원도가 노력해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장 사후활용 방안, 특히 강릉의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남자하키센터 또 평창의 슬라이딩센터도 지금 주체를 제대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이 부분을, 운영비가 연간 한 구십몇 억이 든다고 해요.

그런데 염치없는 소리입니다마는 올림픽 유치할 때 강원도가 분명히 이것을 관리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은 맞아요, 중앙정부에. 그러하지만 지금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상황에 비춰 봤을 때 강원도가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데 이 문제까지 떠안게 되면 강원도는 파산에 이를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서울올림픽 시설은. 그러면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의 시설 주체가 다르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또 하계올림픽 시설도 지금은 경륜·경정, 스포츠토토 등으로 벌어들인 그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권성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국가가, 중앙정부가 좀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 강원도민들의 열망이고 또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그래서 저하고 옆에 있는 염동열 위원이 체육진흥공단에서 동계올림픽 시설 관리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문체부가 입장을 정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법안 심사가 지지부진합니다. 왜, 주무부처가 찬성을 해야 법안 처리가 빨리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말씀하신 대로 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과 또 저희들 모두가 제일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사후활용에 관한 문제와 거기에 따른 재정 부담, 적자 이런 것들입니다.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 특위 위원님들께서도 일본 나가노 시찰도 다녀오셨고, 나가노의 엠웨이브경기장 같은 경우 동절기와 하절기로 나눠서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을 직접 보시고 오셨고 또 이렇게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같은 것을 하셨고 자료를 정리해서 저에게도 주시고 저희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미국에도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고 또 일본도 그런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강릉에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고요. 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들을 지금 자체적으로 점검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으로 법을 개정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것은 또 그것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 점도 저희로서는 참 안타깝고요.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연말까지 마련하기 위해서……

○권성동 위원 다양한 방법이라는 것이……

일단은 IOC에 사후활용 방안에 대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러면 9월 말까지 문체부에서 결론을 내야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시간이 좀 더 걸리면 더 걸리는 대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권성동 위원 그래서 방안이라는 것이 정부재정으로 관리하는 방안, 두 번째 체육진흥공단을 통해서 관리하는 방안, 세 번째는 중앙정부가 영 못마땅하다 싶으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재원을 출연해서 관리하는 방안, 이 세 가지 방안 외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준비를 해 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중앙정부 내지 체육진흥공단을 통해서 하는 방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십몇억 하는데 이게 큰 돈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소득이 지금 3만 불 못 올라가서 그렇지 3만 불 넘어서기 시작하면 동계스포츠 시설이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고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소득이 3만 불, 3만 5000불 될 때까지만 국가에서 부담을 해 달라, 그 후로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 비용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장관님께서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철 권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은혜 위원님 질의 순서가 되네요. 유은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준비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많이 걱정이 되는 게 개·폐막식 관련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방한장비를 다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좀 안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폐막식과 관련해서 어떤 방안들을 더 강구하고 계신지,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 혹시 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일들은 없는지 간단하게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아시는 것처럼 개·폐막식장이 지붕이 없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발 800m 고지에 영하 7.4℃에서 시작을 해서 10시쯤 되면, 2시간 정도 지나면, 영하 8℃, 체감온도 영하 14℃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강풍에 대한 걱정, 만약에 비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지금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조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추위에 대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걱정입니다.

그래도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과 함께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또 다른 경우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대비를 하면서도 걱정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렇다고 무조건 하늘에 기도만 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애초에 개·폐막식장에 대한 설계와 건축이 그렇게 된 것을 지금 바꿀 수는 없는 일이니만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렇습니다.

○유은혜 위원 최대한 방한 대비 또 여러 가지 점검해야 될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또 현장에 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폐막식 관련한 것은 현장 시찰 때 다시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핵 위기에 따른 긴장감이 또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하게 그런 위기 관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더 평화 올림픽에 대한 입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평화 올림픽을 실현하겠다는,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세 분 모두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유은혜 위원 평화 올림픽 실현을 위한 한 방법으로 11월 13일에 유엔총회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유엔총회에서 휴전 결의안 채택이 될 텐데 그 기회를 평화 올림픽 실현을 위한 기회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는 것은 11월 13일 유엔총회 휴전 결의안 채택 시에 혹시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해서 연설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실지 여부는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고요. 지금 평화 올림픽과 관련된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 방법 중의 하나로 지금 외교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직접 유엔총회 휴전 결의안 채택 시에 연설을 하시면 그만큼의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세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장관님께서 참고하셔서 대통령께 제

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리고 올림픽의 개·폐막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점검과 준비가 시간이 많이 촉박한 상태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패럴림픽에 대한 준비는 좀 소홀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티켓 판매 현황도 봤더니 9월 17일 현재 패럴림픽 티켓 판매는 373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현황 자체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패럴림픽에 대한, 특히 장애인들이 직접 관람할 수 있도록 이동수단이라든지 교통대책이 철저하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패럴림픽도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관심이 부족하고 또 아직 입장권 판매라든가 이런 데서도 동계올림픽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패럴림픽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강릉이라든가 평창같은 도시들이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도시가 되도록, 무장애 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철 유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여야가 고르게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장관님, 제가 이것 몇 번째 말씀을 좀 드립니다마는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을 세계 속에 알리고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 속에 평화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올림픽으로 만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올림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2년 전 3년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가의 여러 가지 환란 상태 그리고 안보 문제 이런 문제를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올림픽 때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어떻게 올림픽을 치르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위상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장관님도 물론 문화 체육 관광 3개 소관입니다마는 이 올림픽에 집중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유은혜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붕의 문제는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가변성이 있다. 특히 2월 9일 날은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 갖고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더 주장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붕을 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했던 여러 가지의 기획 행사라든가 이벤트 행사들이 굉장히 차질을 빚을 수가 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하늘에 맡기는 그런 운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추위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진눈깨비라든가 2월에 비도 간혹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5년 동안 준비했던 올림픽이 일시에 물거품이 되고 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늦었지만, 예를 들어 지붕을 한다 하더라도 임시지붕 하는 것도 저도 죽 나름대로 파악도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도 한번 놓치지 말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권성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후 관리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평창이나 강릉은 수도권에서 한 시간대에 가기 때문에 실제로 사후 관리가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릉에 스피드스케이트장이나 이런 것이 집중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실질적으로 서울올림픽 시설을 관리해 왔고 운영해 온 노하우가 있고 그 인적 자원을 활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이것을 운영 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그 노하우를 통해서 K팝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프라를 연결해내 가면 저는 사후 관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외국하고 다릅니다. 외국은 소치라든가 밴쿠버라든가 두 시간 세 시간 걸려서 그 인접한 관광객들이 온다 하더라도 한 100만 명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는 한 시간 만에 우리 2000만 명이 갈 수 있는 거리기 때문에 KTX가 개통이 되면 저는 충분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관광입니다. 저는 올림픽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오면 이 시설은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계속해서 펼쳤거든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오면 이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4년 동안 올림픽 개최지와 주변도시를 묶는 그리고 동해안을 연결하는 이런 관광상품을 한 100여 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광공사하고 지금 준비를 해서 한 11월 중에 이 상품 자체를 온라인·오프라인상에 오픈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죽 저희하고 상임위 하시면서 귀동냥으로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것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관광공사하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점검해서 장관님께서도 올림픽과 올림픽 관광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올림픽 사후 관리나 올림픽에 대한 유산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말씀하신 세 가지 부분, 개·폐막식장 지금 지붕이 없는 부분 또 사후 관리 문제 또 이후의 관광 관련된 문제들을 집중해서 좀 더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영철 똑 부러지는 대답은 아니신 것 같으신데 다음에 저희가 동계특위 회의를 할 때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염 위원님 또 지역구시니까 여러 가지 걱정 많으실 텐데 지금 우리가 세계인에게 방송될 개·폐회식을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지난 6년 동안 이 지붕 문제에 대해서 140일 남을 때까지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왔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황영철 잘 준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걱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참 정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입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님께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 수원시 장안구 출신 이찬열입니다.

날씨 걱정들 하시는데 우리 도종환 장관님 성품으로 봐서 날씨가 좋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런데 지붕이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제안도 하고 또 얘기도 나오는데 전혀 그런 데 예산이 안 잡혀 있다고 그러니까, 지붕 관련해서.

3만 5000명이나 들어간다는데 거기 아까 14℃가 체감온도라고 그러는데 체감온도는 24℃까지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담요……

대통령용 담요는 아주 좋겠지요, 일반 관람객들 담요보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똑같은 담요가 제공될 겁니다.

○이찬열 위원 똑같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이찬열 위원 많이 변했네요.

이게 좌석이 150만 원짜리부터 있습니까, 관람석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150만 원짜리는 없고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개막식은 VIP……

○이찬열 위원 지금 개막식 얘기하는 것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개막식 VIP는 150만 원……

○이찬열 위원 그러면 150만 원짜리는 몇 개나 됩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약 한 3000석 정도……

○이찬열 위원 3만 5000석 중에서?

그러면 우리 내국인들은 거기 많이 갈 수 있나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지금 개막식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마는 A석 150만 원짜리가 오히려 매진에 가깝고요. 일반석도 네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반석은 매진을 넘어서 지금 경쟁이 아주 치열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러다 보면, 그렇게 또 입장권이 판매가 잘되면 우리가 꼭 정말 사회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쪽

구경도 시켜 드릴, 참여도 시켜 드릴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전부 100% 돈만 받고 파는 것입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경로석이 있고요, 국가유공자 또 경로우대석도 있고요, 장애인우대석도 있고. 특히 패럴림픽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요금 자체가 아주 낮게 되어 있고요.

○이찬열 위원 평창올림픽 개회식·폐회식 그것 얘기하는 것입니다. 패럴림픽은 다 그냥 보여 드려도 되지. 여기서 많이 수익을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예, 그렇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다음에 도 장관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북한 선수단이 참여를 해야 된다, 저도 또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금 보안 문제나 이런 문제도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 선수단이 참여하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도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 장관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은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9월 달에 피겨 대회가 독일에서 있어서 거기에서 북한 선수 한 팀이 출전 가능한 방안이 나올 거라고 IOC에서도 그러고 저희들도 그러고 그것 하나를 기대하고 있고요.

IOC 위원장은 북한 장웅 IOC 위원에게 경우에 따라서는 와일드카드까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를 최근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 문제를 제기하면서 꼭 와야 한다, 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남북체육회담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게 IOC와 별개로 투 트랙으로 북한을 접촉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일단 IOC가 주요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 남쪽은 당분간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하셔서 일단 지금 북한 참여의 통로는 IOC가 주로……

○이찬열 위원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것인데,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꾸 오라고 그래 봐야 북한 김정은이 귀를 열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IOC 위원장이 직접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서 IOC하고 북한하고 소통이 돼서 평창에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실제로 그렇게 IOC가 하고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리고 강원도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춥다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부지사님!

○강원도행정부지사 송석두 예.

○이찬열 위원 최문순 지사님은 오늘 바쁘신가 보지요?

○강원도행정부지사 송석두 GTI(무역·투자박람회)라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장관님도 나오셨는데 오셔야지.

○강원도행정부지사 송석두 예, 지사님께 가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강원도의 겨울 관광은 사실은 저는 준비되어 있는 우리 내국인,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만 할 수 있는 관광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냉정하게 얘기하면. 여름이고 가을이면 강원도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겨울 등산 준비라도 해 가지고 오지 않는 한 과연 강원도 겨울 관광은 무엇을 할 것인지 저는 이것도 고민을 해서 뭔가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야 아이젠 하나 들고 가면 되는데 외국인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황영철 이찬열 위원님, 발언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으니까요,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 시간이 지났습니까?

○위원장 황영철 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이찬열 위원 시간 지난 것도 몰랐네.

그런 것도 겨울 관광을 특별히 외국 손님들한테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행정부지사 송석두 예, 유념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걱정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으로 많은 발언시간 요청이 있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이동섭 위원님께서 꼭 질의를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 장관님, 올림픽플라자가 임시건물로 지어져 있는데 지금 대안을 아직 못 찾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3만 5000명이나 들어가고 있고 영하 10℃가 넘어가는 그런 혹한에서 그게 처방이 안 된다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국격 있는 나라고 선진국인데 참여한 각국 선수들이나 임원들이 뭐라고 우리를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대안을 얘기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특수비닐로 해 가지고 덮으세요. 그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특수비닐로 해 가지고 눈비 오면 바로 그냥 덮을 수 있도록, 그게 장치하면 별로 돈도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 간단한 걸 가지고 자꾸 고민합니까. 저는 방금 생각했어요. 너무 화려하게 할 생각도 없고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예산 안 들어가고 그런 방법으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비 맞을 때 비옷 입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시방편으로 비를 피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라도 하면 되는 것이지 꼭 그 시설을 갖다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숙박업소 문제가 평상시에는 오륙만 원인데 올림픽 특수기간은 90만 원 정도 받겠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건 정말 우리나라를 갖다가 외국인들한테 망신 주는 처사거든요. 이런 것도 잘 조정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개막식 행사, 개막식 공연행사 무대도 지금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개막식 프로그램 준비되고 있는 것과 말씀하신 특수비닐로 덮었을 때 개막식 행사하고는 아무 지장이 없는지 이런 걸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셔서 이 부분도 한번 함께……

○이동섭 위원 제가 할 말이 많으니까 끝나고 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림픽이라는 게 특히 우리같이 남북이 대치돼 있는 특수상황에서는 세계적인 평화축제고 평화 올림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남북 평화 올림픽을 통해서 단일팀 하나 정도는 구성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우리 남북이 서로 응원하고 하나 되고 어우러져서 축제 한마당으로 또 평화의 올림픽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혹시 비밀이라도 서로 교류 같은 것 한 것은 없습니까, 북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도 있는데요.

○이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이번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올림픽에 있어서. 남북이 지금 이렇게 대치한 상황이고 핵 무장으로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올림픽을 통해서 남북이 화해·협력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올림픽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동섭 위원 그리고 제가 일본의 체육청을 방문했고 존경하는 김규환 위원님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는데, 가토 문부과학성장관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2010년 일본 올림픽의 성공은 패럴림픽 성공이 올림픽 성공의 완성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분들이 장애인들을 대하는 아름다운 마음에 저는 아주 코끝이 찡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패럴림픽도 함께 성공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희범 조직위원장님, IOC 입장권 문제에 대해서 지금 IOC가 그걸 감당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손 놓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아닙니다. 입장권 발매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물론 IOC의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주는 준칙 안에서 저희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리고 홍보도 전국체전 홍보보다 못한다. 국민들의 관심이 전국체전보다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안에 들어 있으면 몰라요. 저는 체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체육인들하고 교류를 합니다. 그런데 평창올림픽이 전국

체전보다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요. 각성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대충 될 일이 아니라, 우리 국가 대사 아닙니까? 이것 망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관님도 계시지만, 장관님 그 다음에 강원도지사님, 강원도지사님도 오늘 같은 날은 나와서 경청을 하고 말이지요, 대안 제시도 하고 해야지, 아무리 바빠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그리고 사후관리가 얼마나 중요……

사후에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나라 경제도 어려운데 강원도 때문에 말하자면 적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가라앉을 수 있어요. 이것 심각한 사안입니다.

강원도지사 나오라고 그러세요, 앞으로.

○강원도행정부지사 송석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이희범 위원장님, 이게 간단한 일 아닙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국체전 홍보보다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세요. 대안 만들어 보세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철 이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기준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심기준 위원 심기준입니다.

부지사님, 사후활용 방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사후활용 방안 하면 엘리트 스포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썰매경기장이라든지, 스키점프대, 그리고 하키센터, 그리고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 등을 주로 사후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보광이나 용평에 시설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학 교내에 지어져서 대학에 사후활용을 맡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대학이나 사적인 용평이나 보광과의 사후활용에 대해서 강원도가 그분들에게 맡기면서 한 것이 이것이 MOU입니까, MOA입니까?

○강원도행정부지사 송석두 지금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비용이라든지 부담 주체에 대한 명백한 의향만 해 놓은 상태고요. 구체적으로 비용이라든가 실체적인 사용조건에 대해서는 다시 본협약을 해야 됩니다.

○심기준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도 사후활용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원도행정부지사 송석두 그 부분도 다시 짚어야 될 부분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심기준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미 사후활용 방안에서 다 끝난 것처럼 도도 얘기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앞으로?

○강원도행정부지사 송석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대중적으로 쓰거나 사후활용 방안에 대한 주체도 의향이 있고 사후활용에 대한 계획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존중해서 아까 말씀드린 특별법을 고쳐서 사용 주체를 이관하면 저희들은 사후활용이 되리라고 일단은 현재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인 사용계약 조건이나 이런 것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듬어서 본협약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지금 4개의 전문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도저히 비용 측면에서나 관리 주체면에서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국가가 좀 맡아 달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심기준 위원 그런데 지금 계약서상에 보면 그것이 MOU가 아니라 MOA처럼 완전히 그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됐을 때의 처벌조항까지도 있는 걸 보면 이 부분이 분명히 MOA인데, 지금 MOU라고 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도에서는 아예 그것이 귀찮으니까 그냥 학교에다 이관을 해 줘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느낌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강원도행정부지사 송석두 활용 방안까지를 다시 고민하고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지역에 그것이 제대로 당초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유념해서 저희들이 본협약을 하고 사용조건을 이관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더 논의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기준 위원 그리고 조직위원장님, 저희가 동계올림픽에서 입장권 그리고 관중 이러한 수들을

봤을 때 아이스하키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일부 언론보도에는 40% 매출이라고 그러는데 40%까지는 아니고요. 경기수는 많습니다. 저희 전체 매출의 한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기준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스하키 자체가 입장권 수입이라든지 관중들 동원하는 데 있어서 종목에서는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그렇습니다.

○심기준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이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는 선수를 파견하지 않는 걸로 지금 IOC와 북미아이스하키협회와 협상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이징은 참여를 하겠다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완전히 협상이 끝난 것인지, 아니면 북미아이스하키리그에 정말 세계적인 유명 선수들이 있어서 그 선수들을 보러 오는 관중들이 상당수가, 그리고 그 선수들을 보러 오기 위해서 그 국가에서 올 텐데 지금 이 부분이, 아이스하키가 이렇게 동계올림픽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 조직위 차원에서 IOC와 협의를 해서 정말 북미아이스하키리그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좀 더 노력해 볼 여지는 없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리마 IOC 총회에서 국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만났고 IOC 위원장도 만났습니다. NBC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아이스하키협회의 커미셔너(commissioner)는 물론 불참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마는 국제하키연맹의 회장 입장에서는 아직도 계속 대화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심기준 위원 그리고 그것 좀 협상을 하셔 가지고 꼭 참여할 수 있게 그래서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철 심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李憲昞 위원 부산진구을 출신 이헌승 위원입니다.

88서울올림픽에 이어서 30년 만에 개최되는 평창올림픽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李憲昞 위원 마지막 남은 변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성공적인 개최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우선 아직 대회 붐업이 안 되고 있는 문제하고요.

○李憲昞 위원 예, 계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게, 개·폐막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개·폐막식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 홍보 문제, 그리고 사후활용 문제, 이런 것들이……

○李憲昞 위원 금방 장관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은 변수가 될 수 없고 그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마지막 변수는 북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와 같은 북한의 도발과 긴장 국면이 계속된다면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정말 담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완전 파괴하겠다고 언급을 하고 북한 역시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 가면서 지금 현재 한반도 상황이 더욱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는데요.

최근의 입장권 판매 부진이라든지 NHL의 올림픽 참여 포기 선언 등도 이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어제 우리 대통령께서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장관님, 북한의 대회 참가를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우선은 IOC가 주도적으로 북한과의 접촉을 하겠다, 창구를 단일화하자고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이야기를 대통령께도 제안하시고 저희한테도 제안하셔서 일단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

고요.

IOC가 주도적으로 북한과는 접촉하고 있고,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걸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현재 북한이 참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참가 여부는 IOC에서 도움을 받으면 가능은 하겠지만 실제 북한 선수단이 참가를 할 수 있게 움직이는 것은 우리 정부 측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제 뉴욕 특파원 간담회에서……

문체부2차관이 지금 미국 가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李憲昇 위원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것은 IOC 위원장이 직접 북한의 장웅 IOC 위원을 만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장웅 IOC 위원이 그 직후에 정치와 스포츠는 별개라고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는 저간의 몇 개의 보도를 통해서 보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실제로 10월까지도 군사적 상황이, 계속 미사일을 쏘고 하는 상황들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남북문제가 풀리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은 성화 봉송 이후 또 11월 이후 좀 더 구체적인 접촉과 성과와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10월까지는 군사적 대치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李憲昇 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장웅 IOC 위원의 원론적인 말에 입각을 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실제 남북한 체육 관계자가 회담을 했다든지 하는, 접촉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실제 남북한 체육회담은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 IOC가 일단 창구를 단일화하자고 그래서 저희는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접촉한, 저희 외의 다른 라인으로 접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李憲昇 위원 조금 미묘한 답변을 하시네요.

그러면 만약에 북한이 대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 올림픽 개최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외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핵실험 이후에 남북이 미사일을 서로 계속 쏘고 있는 것 때문에 올림픽이 열리는 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우려까지 하는 나라들이 있어서 외국에 '안전하게 할 수 있다',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되는 과제가 저희들한테 있고요, 또 진짜로 실제로 하고 있고요.

어제 프랑스 체육부장관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핵 상황이 악화되면 대표단을 출전시키지 않겠다'라는 발언까지 하고 있어서 외국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불안하게 이 국면을 보고 있어서요, 외국에 이런 문제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李憲昇 위원 장관님……

조금만……

마이크 더 안 넣어 줍니까?

○위원장 황영철 지금까지 안 넣어 드렸습니다.

○李憲昇 위원 나중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금방도 장관님께서는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최상의 경우가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고, 만약에 북한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다른 국가들이 안심하고 평창올림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나머지 사항은 제가 추가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은 드리고 싶은데 앞의 위원님들도 추가시간을 드리지 않아서 약속된 5분을 다 지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명길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최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명길 위원 서울 송파을의 국민의당 최명길입니다.

조직위원장께 좀 묻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참여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아주 묘한 맥락으로 평창과 평양을 자꾸 헷갈려 하는 해프닝들이 생기고 있고, 이게 몇 년 된 일인데 지금도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88년 이후에 30년 만에 한국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해서 세계에 한국과 평창을 알리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5개월 남겨 놓고 있는 가운데서도 평양과 평창을 헷갈리는 외신 보도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아시겠지만 실제 2015년 4월 24일 자 월스트리트 보도에 따르면 평창과 평양의 로마자 표기가 비슷해서 평창에 가려던 외국인이—케냐인들인데요—평양에 갔다 온 웃지 못할 사건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완전 해소가 됐느냐 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실증적인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보도된 뉴스 영상 일부인데요, 직접 한번 보시지요.

(동영상 상영)

이런 일도 있고요.

이게 어찌 보면 약간 코믹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그런 일인데요. 물론 외국인들, 미국인들도 평창 평양 헷갈린다는 얘기를 저런 뉴스를 만들어서 보도할 정도면 이미 평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저런 게 아직도 우리나라를 꽤 안다는 미국에서 방송이 된다는 것은 정말, 어쩌다 아직 여기까지밖에 못하고 있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외신 기사들도 자꾸 보지만 'Pyongyang, South Korea'라고 쓴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는 지금 해외 언론 모니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실을 보고받았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예, 저희도 지금 힐앤놀튼이라는 국제 해외 홍보 전문기관을 컨설팅 펌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해외 홍보도 직접 할뿐만 아니라 모니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100%는 아니지만 해소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최명길 위원 지금 앞으로 계속 노력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까지 평양과 평창……

그리고 '창'의 'c' 자가 소문자로 쓰여 있는 게 'y'랑 헷갈릴 수 있어서 캐피털 레터 'C' 큰 자로 쓰기로 다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잘 실현되고 있나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저희는 계속 대문자로 쓰고 있습니다.

○최명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해외 언론에 다시는 이런 '평양' '평창'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조기에 뭔가 대책을 세울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방안을 한번 빨리 마련해 보시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절한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하반기에 10월 16일부터 글로벌 티켓 판매를 합니다. 티켓 판매하고 연계해 가지고 강원도, 문체부, 저희가 합해서 홍보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해외 홍보도 대폭 강화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최명길 위원 차라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평양이 아닌 정말 평화의 도시 평창이다' 이런 것을 홍보하듯이 해서, 저렇게 문제가 된 바에는 차라리 평양과 평창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홍보하는 편이, 이게 평화의 상징 강원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평창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역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철 최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김기선 위원 김기선입니다.

조직위원장님, 제가 지난번 회의 때 통합 재난방송시스템 추진하고 있는 것, 안전처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이희범 위원장님!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예, 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지난번에 안전처하고 저희가 몇 차례 회의를 했고요……

○김기선 위원 기재부에서 관련 예산을 배정 안 해 가지고 지난 5월 달까지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그 부분을 챙겨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리고 다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국민과 세계인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제일 관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국회에서도 지난번 추경을 통해 가지고 주로 홍보 쪽에다가 500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드렸는데……

장관님, 홍보·붐업 말씀하시는 이것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아직 제대로 못했고요. 지난번에 추경에서 예산을 마련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강원도에서 또 매칭해서 예산을 지난주에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외 홍보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563억의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계획을 세웠고요. 바로 이 돈을 집행하면서 국내 홍보 또 해외 외신을 대상으로 한 홍보, 매체 홍보, 온라인 홍보에 이르기까지, 내년에 80억까지 이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김기선 위원 그게 문체부, 조직위원회, 강원도, 이렇게 홍보를 다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아닙니다. 통합해서……

○김기선 위원 통합해서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다 통합해서 하기로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김기선 위원 지난번에 서울시청 앞에서 봅슬레이 행사한 것, 이런 일회성·이벤트성 행사, 여러 가지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 행사 해 가지고 붐업이 진짜 얼마나 되느냐…… 춘천에서 한 불꽃놀이 이게 제대로 된 붐업을 조성하기 위한 행사냐 행사를 위한 행사냐…… 이게 논란이 상당히 많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에 관련된 홍보 전문가들이. 이런 것 치중하지 마세요. 이런 것 하라고 500억 이상 홍보 예산 확보했던 것이 아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제가 보니까 조직위원회가 하든 아니면 문체부가 하든 KOICA부터 해 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많이 접촉하는, 영향력 있는 데 접촉하는 대사관 이런 데…… 올림픽 홍보물들이 있습니다. 호돌이하고 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선물할 때 외교부나 이런 데 협조 다 구하고 그래 가지고 전부 앞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얘기하면서 홍보물도 그런 걸로 좀 해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 해외 많이 나갑니다. 나갈 때 선물 다 가지고 가요. 그쪽에 누구 만나면 선물 교환합니다. 이것 갈 때 전부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와 관련된 물건 가지고 갈 수 있게끔…… 그런 것, 제일 홍보 효과도 높으면서 가까이서 할 수 있는 것, 이것 왜 안 합니까?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엉뚱한 선물 가지고 다녀요, 국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것부터 반드시 확립을 시키세요.

그리고 홍보에 제일 효과가 큰 것은 몇십억 들여 가지고 일회성 행사 하는 것이 아니라 뭐니 뭐니 해도 언론·방송 여기에 적극적으로 투입하십시오. 그게 홍보 효과가 제일 크다……

내가 보면 알면서도 그것 잘 안 하는 것이 그것 해 가지고 뭐 남는 것이 없어서 그러는지, 언론·방송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고.

그리고 모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외와 관련돼 있는 것은 KOICA를 비롯해 가지고 대사관, 각 부처 나가고 국회 나갈 때 이것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기업의 외국 상사 주재원들, 대기업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런 데 올림픽 홍보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요. 마스코트 이런 것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효과도 크다, 그거 받은 사람들 다 좋아해요. 이것부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말씀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저희가 잘 받아들이고 또 인식해서 불꽃놀이라든가 일회성 행사 같은 것보다는 언론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홍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해외 홍보에 185억, 그다음에 국내 매체 홍보에 137억, 오프라인 홍보에 138억 이렇게 지금 언론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잡아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물로 수호랑, 반다비 이런 인형, 기념품들을 행사 때마다 주면 좋겠다는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고요. 대통령도 국가수반들 만났을 때 이런 선물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모든 선물을 이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좀 기다리셨다가 또 추가질의 시간 드릴 테니까요 그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진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고용진 위원 고용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홍보 문제는 지적을 많이 하셔서 제가 길게는 얘기 안 하겠고요.

장관님, 홍보기획 TF가 언제 구성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최근에요.

○고용진 위원 지금 원래 계획했던 홍보 포인트 시기를 많이 놓쳤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렇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래서 지금 6~10페이지까지 자세한 거 해 놓으셨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 전문가, 관계 전문가를 한번 모아 가지고 이게 효율적인 집행 계획인가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이게 막 퍼져 있기만 하지 실제적으로 효과가 미심쩍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전문가와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리고 저는 대회 운영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같이 들어 주시고요.

동계올림픽 설상 종목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코스 조성입니다. 그래서 자연설하고 인공설 가지고 코스를 만드는 일인데 이게 바로 성공적 개최의 핵심 포인트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고품질의 제설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 기상 이변으로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대회가 취소되는 경우도 많고, 우리도 지금 고온 문제가 걱정이거든요. 아까 폐회식 때는 오히려 혹한 때문에 걱정하시지만 설상경기의 경우에는 고온 또는 비가 오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러시아 소치동계올림픽 때도 눈 부족 사태 우려가 굉장히 심해 가지고 기설제도 지내고 눈 보관창고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비도 했는데 폭설이 와 가지고 그것은 잘 면했었고요.

우리도 2009년 2월에 평창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가 있었는데 이때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관령 눈꽃축제를 위해서 만들었던 눈 조각을 가지고 와서 대회장에다 뿌려 가지고 겨우 대회를 치렀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으면 또 평창동계올림픽 운영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다, 그래서 국제스키연맹에서도 이런 기상 변수를 고려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만들어라 했는데 상업용 제설기를 이동시켜서 눈을 만들겠다는 정도란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혹시 장관님 알고 계신지, 아니면 위원장님이 준비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장관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지금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절한 우려라고 생각하고요. IOC나 국제경기연맹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꼭 같은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테스트이벤트 할 때는…… 재작년에는 눈을 저장해 가지고 눈이 안 올 경우에 대비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저장도 해 봤는데 여름 지나 보니까 60%가 녹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장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지금 눈을 만드는데 150% 정도, 소요량보다 훨씬 더 눈을 만들어 가지고 정선 알파인센터 같은 경우는 경기장 옆에다가 눈을 좀 쌓아 놓는 이런 방안을 지금……

○고용진 위원 그러니까 경기장 옆에 눈 쌓는 게 현재 대책인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그런 것……

○고용진 위원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눈을 쌓아놔도 결국은 녹아내릴 것 아니에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용진 위원 그러면 그게 녹지 않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영하로 내려갔을 때는 자연설을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저장하는 방안 등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고용진 위원 지금 그 정도 갖고…… 지난번 2009년 2월에도 낮 최고기온이 12도까지 올랐었거든요, 평창 바이애슬론대회 때. 이런 것 저는 대비가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눈을 쌓아 놓는다, 눈동산 플랜도 해 보니까 잔존율이 워낙 떨어져서 그렇다는 얘기고, 지금 쌓아 놓으시겠다는 정도밖에 없고 상업용 제설기를 가지고 눈을 만들겠다는 그런 정도인데, 그거 가지고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요.

특히 비가 온다든지 영상으로 확 올라간다든지, 그리고 특히 패럴림픽 때는 3월 9일부터 아닙니까? 패럴림픽도 우리가 잘 치르자, 잘 치르자 하면서 패럴림픽대회의 코스 상태가 엉망이라고 그런다면 그야말로 구두선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의 제언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장관님께서도 관심을 좀 가지셔 가지고, 정말 설상경기가 좋은 코스에서 유지가 되어야 기록도 잘 나오고 만족도도 올라가는 거니까 이에 대해서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장관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지금 계획 대비 50% 이상을 증설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온난화 현상의 영향으로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상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기술적인 고민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준비한 것들이 맞는 건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철 고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참석하셔서 질의 순서 기다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벌어지는 곳이 저희 집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제가 반갑게 생각하는데 안타까운 게 있어서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강원도에서 만든 유인물 7쪽 좀 봐 주세요.

우리 집안끼리니까 탁 터놓고 얘기하지요.

맨 밑에 그림 보면 개선 전, 개선 후 있지요?

○강원도행정부지사 송석두 예.

○김규환 위원 여기 '면온IC, 휘닉스 평창'이라고 써져 있는데 '휘닉스 평창'이 무슨 뜻이에요?

○강원도행정부지사 송석두 ……

○김규환 위원 내가 외국인이다, 아프리카에서 왔다, '휘닉스 평창' 무슨 뜻입니까?

잘못됐지요?

○강원도행정부지사 송석두 예,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 아니,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강원도행정부지사 송석두 예.

○김규환 위원 그러면 내가 태국에서 왔습니다. '휘닉스 평창' 무슨 뜻이에요, 7페이지?

○강원도행정부지사 송석두 '휘닉스 평창'이 경기장명…… '휘닉스 파크'에서 '휘닉스 평창'으로 바꾼 겁니다.

○김규환 위원 아니, '휘닉스'가 여기 왜 들어가요?

올림픽 표기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강원도행정부지사 송석두 예.

○김규환 위원 그런데 올림픽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강원도행정부지사 송석두 보광에서……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김규환 위원 아니, 내가 우리 집으로 가다 보면 평창 읍내 들어가는 길이 있고 대화 쪽으로 해서 평창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강원도행정부지사 송석두 예.

○김규환 위원 그러면 평창 읍내로 들어가는 것도 평창이고 '휘닉스 평창'도 평창이고.

외국인입니다. 우리끼리니까 나 외국인이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잘못됐지요?

○강원도행정부지사 송석두 예, 더 자문을 구하

고 해서……

○김규환 위원 아니, 이것을 브레인스토밍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 갖고 해야지 그냥 글자 몇 개만 고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올림픽이라는 얘기가 있어야 돼요. 무슨 휘닉스 홍보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러면 '올림픽 평창'이라고 하든지, 그 밑에 '올림픽 가는 길'이라고 하든지……

그럼 또 다른 것 한번 얘기해 볼게요.

IC가 무슨 뜻이에요?

나 외국에서 왔어요. IC, 그렇지요?

○강원도행정부지사 송석두 ……

○김규환 위원 안내를 외국인이 왔을 때 알아듣게끔, 글씨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IC 이것도 좀, 우리끼리는 TG, IC 아는데……

장관님, '휘닉스 평창' 아세요?

잘 모르시겠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고개를 끄덕임)

○김규환 위원 올림픽이라는 얘기 없어요, 여기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는 명장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혹시 '하얀 코끼리'라는 얘기 들어 보셨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1998년도 나가노올림픽에서는 10조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하고 1조 원이 투자됐고 6개 경기장 신축했는데 엄청난 문제가 생겼다는 것 다 아시기 때문에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나가노 꼴 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게 있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뒤로 미루려는 생각하지 말고 진짜 전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으든지 해서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하얀 코끼리—유지 관리 거액의 쓸모없는 경기장을 지칭하는 얘기인데—이런 게 안 되도록 준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

물어볼 게 너무 많은데……

버스가 여기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버스? 버스 1대에 몇 명씩 탑니까, 버스 1대에? 아니, 개인이 차 갖고 못 들어가고 경기장에 버스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강원도행정부지사 송석두 40인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 그러면 4만 명 들어가게 되지요? 버스 몇 대에 싣고 들어가야 돼요?

○강원도행정부지사 송석두 ……

○김규환 위원 이것 연구하세요, 실수하지 말고. 큰일 납니다.

○강원도행정부지사 송석두 예.

○김규환 위원 두 번째, 경기장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몇 군데로 되어 있어요? 위에 올라가서 돌아서 다 내려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님, 올라가는 길은 몇 군데 있어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환승 주차장은 엑시트(exit)에서 나오면 모든 차량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버스를 타도록 되어 있고요.

○김규환 위원 그런데 그 버스 몇 대에 타냐 이거야.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입구는 선수용 그다음에 일반관람객용, VIP용 해서……

○김규환 위원 4만 명이 아니라 여기 5만 명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하루 종일 싣고 날라도 40대가 몇 번 가야 되냐 이거야. 1000대 이상 들어가야 되거든요. 진짜 답답합니다. 어떻게 계산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올라가는 길도 한 군데서 올라가서 다 퍼져서 내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5만 명이 다 들어가려면 몇 시간 걸릴지 이것 계산해 보셨어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예, 교통연구원하고 해서 시뮬레이션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 아니, 교통연구원이 아니라 5만 명이 경기장 입구에 들어가려면 한 군데로 올라가서 몇 시간을 들어가야 되는지 혹시 계산하셨어요? 지난번부터 계속 내가 질문하는 얘기거든요. 거기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려고 계단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는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안전사고 났다, 노인네들 저체온증 있다 그러면 의사들 배정은 얼마나 하셨어요? 의사 지금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관련 의무실하고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규환 위원 아니, 의사가 몇 명이 되어 있냐고요, 지금 현재 확보.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현장에 의사들도 다 있고요.

○김규환 위원 아니, 몇 명이 되어 있냐니까요. 5만 명이 있는데, 미끄러지는 장소에서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는데 5만 명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혹시 의사의 확보 수 갖고 계세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경기장별로 의사 확보 수가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김규환 위원 그러면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철 오후가 아니라 회의 끝나고 또 필요하시면, 저희 회의는……

○김규환 위원 아니, 우리끼리니까 그냥 터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영철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주질의 다 끝난 이후에 또 발언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님, 먼저 질의 순서 드리겠습니다.

○김관영 위원 많이 기다렸습니다.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김관영 위원 조직위원장님도 같이 좀 들어 주십시오.

지금 홍보에 관한 문제를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름 종합TF 만들어서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연초에, 지금이 9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초에 세웠던 홍보계획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올해 3월, 4월, 5월에 홍보 예산을 쓰고 TV라든가 광고를 했다면 '이러이런 효과를 거두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당시 세운 목표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덟 달, 아홉 달 동안 이런 것을 했을 때 당초 1월 달, 2월 달에 생각했던 목표들이 제대로 달성됐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 그냥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만 주로 되어 있지 과거의 연초 계획 대비 우리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문제인 것에 대한 정확한 점검이 지금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선택과 집중을, 지금은 시간이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홍보 여러 매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빨리, 예를 들면 일주일이 됐건 열흘이 됐건 이것을 분석해서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이 어떤 홍보수단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빨리 끄집어내고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있을 홍보계획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심기준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북미아이스하키리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이번 올림픽이 흥행을 하냐 흥행하지 않냐, 가장 성공의 지름길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동계올림픽 전체 관중과 입장 수입의 40%가 아이스하키에서 발생이 되고요. 2010년 밴쿠버올림픽 입장 수입의 46%, 2014년 소치올림픽에서는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HL이 과연 오냐 안 오냐가 결국 가장 관건인데 국제아이스하키연맹 회장은 13일날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번에 NHL의 동계올림픽 출전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졌다' 이렇게 이미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단히 긴급하고 중요한 조치들을 해야 된다……

아까 조직위원장님, IOC 위원장 만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 나누셨어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NHL의 참가가 계속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국제하키연맹……

○김관영 위원 그러면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만나 봤더니?

그러면 그 사람들 참가시키려고 할 때 뭐가 장벽이에요? 뭐를 해결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사실은 IOC하고 미국 NHL

하고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소치나 다른 대회에서는 IOC가 NHL 참가를 위해서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평창서부터,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오고 난 다음에 개별 경기연맹에 돈을 못 주겠다라고 해서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관영 위원 그러면 제가 사업 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불법이 되는지 탈법이 되든지 모르겠어요. IOC하고 거기하고 기싸움하고 있다면……

예를 들면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정말 이번 올림픽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일부 경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식은 불법입니까?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가 안 됩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아니요, 그런 대화도 있었습니다. 저희한테도 표 500장을 공짜로 달라든가 서울에서 그 사람들의 보험료를 지원해 달라든가 출퇴근을 시켜 달라는 대화를, 협상을 하다가 협상이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김관영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기에 빨리 협상을 해서, 우리가 IOC에 매달려서 IOC가 그 사람들하고 예를 들면 빨리 협상을 해서 협상이 타결되든지, 개선이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우리가 나서 가지고 'NHL이 원하는 것을 IOC가 못 해 주면 우리라도 해 줄 테니 와라'라고 협상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빨리 조기에 타결해서, 이 사람들도 게임 전체 일정이 있잖아요. 그래야지 올림픽 기간을 비워 놓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 양반들이 와야지 올림픽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쓸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관님, 말씀 한번 해 보지시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NHL은 불참 선언을 했지만 저희는 계속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제시하는 조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저희 고민이 많은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관영 위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안이하다 그리고 굉장히 어전트(urgent)하지 못하다라는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위원장 황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헌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오래 걸렸는데……

조직위원장님, 조직위원장님!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예.

○송기헌 위원 집중하세요. 집중하시라고.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예.

○송기헌 위원 알펜시아 무상 사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알펜시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비드파일을 할 때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IOC가 요청을 했고요.

○송기헌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강원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다만 그 이후에 강개공에서 문제제기를 해 와서 현재 강개공하고 강원도하고 문체부하고 저희 조직위원회가 합의를 했습니다. 실무 합의한 바로는 일단 베뉴 사용 협약은 해주고 사용료 문제는 추후에 협의를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합의가 이제 완전히 됐나요?

강원 부지사님, 그런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강원도가 중재가 돼서 문체부하고 해서 합의가 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부지사님, 맞아요?

○강원도행정부지사 송석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료 부담 주체를 지금 결정하기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선 사용하는 데 합의를 하고 사용료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지금 올림픽 임박해서 이런 것이 올림픽 개최……

○송기헌 위원 그러니까 사용료 부담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안 됐네요, 그렇지요?

○강원도행정부지사 송석두 예.

○송기헌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굳이 이 사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직위원회하고 강원도하고 원만하게 협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 인상이에요. 이 건만이 아니라 여러 건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강원도하고 올림픽조직위원회하고 원만하게 정말 마음을 터놓고 협의가 안 됩니까?

저는 그게 답답한 것 같아요.

비드파일 자꾸 강요하는데 비드파일 그대로 되지 않잖아요?

조직위원장님, 그렇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

○송기헌 위원 스키점프장에서 처음에 개막식하기로 비드파일에 되어 있던 건데 바뀌었고 또 올림픽역도 알펜시아 인근 대관령 지역에 건설한다 했는데 이것도 안 됐고 그렇잖아요. 비드파일 그게 금과옥조처럼 꼭 지켜야 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타협이 됐다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입장권 판매에 관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국내 판매목표량 75만 매 중에서 6만 8000매 팔렸네요, 그렇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

○송기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뭐하고 계세요, 지금?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지금 경청하고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손으로 뭐 하시는 것 아니에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질문을 받아 적고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9% 판매했어요, 9%, 그렇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아닙니다.

○송기헌 위원 그런데 자료에 그렇게 나왔는데?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자료로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25% 정도 팔렸습니다.

○송기헌 위원 25%는 국내외 합쳐서 그런 거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국내가 그 정도 팔렸고요. 해외는 30만 매 배정을 했는데 50% 정도 팔렸습니다.

○송기헌 위원 해외가 32만 매 중에서 17만 4000매 팔렸고……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17만 매 정도 팔려서 한 50%, 배정된 양의 50% 정도.

○송기헌 위원 54%.

지금 국내 몇 % 팔렸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25%요. 25% 정도 팔렸습니다.

○송기헌 위원 그게 총 판매 장, 27만 장이 지금 그건데, 합쳐서인데?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그 판매된 내용은, 현재 판매된 진도는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해 올리겠습니다마는……

○송기헌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뒤에 사무총장님이나 누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현재까지 판매된 것은 한 26만 매 정도 판매가 되어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그리고 이것을 지금 교육청·자치단체에서 입장권을 사 가지고 지역주민한테 제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획하시는 것 아닌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그렇습니다.

○송기헌 위원 그것 국민 세금으로 입장권 사 가지고 나눠 주나요? 입장권을 팔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그렇게 손쉽게 생각하십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손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송기헌 위원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이렇게 소요될 것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우선 저희들로서는 자력 판매를 통해서……

○송기헌 위원 아니, 어느 정도 예상하시느냐고요, 이렇게 소요될 게?

다 판매하시고 나머지 안 한다 그러셨잖아요, 이걸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생각하시느냐고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아직 구체적으로 지자체에 얼마나 판다는 계획을, 아직 숫자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기헌 위원 좀 디테일한 데가 너무 없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지금 온라인 판매가 9월 5일부터 시작이 됐고 오프라인 판매가 10월부터 되기 때문에 그런 진도를 봐서……

○송기헌 위원 잠깐, 이것 하나만 더……

위원장님 말고 부지사님, 호텔스컴바인이나 익스피디아 이런 숙박 가격 비교 사이트를 보면 2017년 10월 달 숙박요금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18년 2월 달 숙박요금하고 몇 배 정도 차이날 것 같아요?

○강원도행정부지사 송석두 사전에 위원님이 걱정하신다고 전화를 주셔서, 10배가 차이나는 것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 들었습니다.

○송기헌 위원 그렇지요? 4만 9000원인데 그때 되니까 49만 9000원이에요, 그것도 게스트하우스인데. 그 돈 주고 가겠어요, 그러면?

○강원도행정부지사 송석두 위원님 걱정하시고,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아주 걱정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저희들로서는 실시간에 수요-공급자를 연결하는 정보 안내를 우선 하고, 지금 조직위에서 가지고 있던 5355실을 포함한 크루즈 등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면서 지도점검 자정결의를 해서 적정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게 행정기관이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수단은 사실상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의견을 모으고, 현재 예약률이 10%라서 숙박업소에서는 호가를 지금 제시해서 가격을 어떻게 잡는 게 자기들의 최대 이익을 구할지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의 노력을 해서 가격을 최대한 안정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잘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원도행정부지사 송석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물론 아주 성수기 때 가격 당연히 비싸야 됩니다, 똑같지는 않지요. 그런데 사실 그 지역에서 그 계기를 이용해 가지고 폭리를 취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강원도행정부지사 송석두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유념을……

○송기헌 위원 그 지역에서 자기 동네가, 마을이 국제행사 개최를 하면 같이 참여한다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강원도행정부지사 송석두 그런 것 등을 지역의 관련 업계 단체들과 저희들이 주기적인 대화를 하면서 향후에도 강원도 관광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좋게 잘 빨리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행정부지사 송석두 예,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위원님께도 상의 말씀 올리고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철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남아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더 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시간 드릴까요?

그래도 끝까지 남아 계셔서……

저희가 사실은 12시 이전까지 회의를 마치려고 그랬는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憲昞 위원 장관님, 얼마 전에 경의중앙선 구간에 열차 추돌사고 난 것 혹시 기억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李憲昞 위원 이게 사실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에 우리 국내 관광객들을 수송할 KTX 열차 시운전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정말, 대회 기간 중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정말 대형사고지요.

그래서 이런 유사시의 수송대책이라든지 안전대책을 잘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정부에서 올

림픽 관련 장차관 회의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李憲昇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을 잘 의논하셔 가지고 우리 부서들끼리 협조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리고 조직위원장님!

NHL이 불참하는 불참 사유가 뭡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IOC가 사실은 매 4년마다 동계올림픽에 NHL이 자기의 정규 게임을 중단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보상해 왔습니다. IOC가 새로운 IOC 위원장이 오면서 개혁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 보상을 중단하면서 IOC와 NHL 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李憲昇 위원 지난 4월 달에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그때 계속 협의를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평창에는 관심이 없지만 2022년 북경올림픽에는 관심이 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국제하키연맹회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키연맹회장 입장에서는 '그것은 사실 하키연맹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 본인이 마음대로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국제하키연맹은 NHL에 전달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李憲昇 위원 일단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하게 협상을 하든지 해서 그런 협조를,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데 그게 실패를 해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입장권 관련해 가지고, 1차 예매를 했지요? 완료가 되고 지금 2차 판매하고 있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그렇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1차 판매에서 미리 배정받은 좌석들이 너무 모서리라든지 좀 이렇게 변두리다, 이래서 많은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온라인 판매를 먼저 하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 조금 페이버(favor)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좌석 배치 같은 것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그렇습니다. 사실은 1차 판매를 했더니 좌석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반납을 해 달라는 요청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팬 투 팬(Fan To Fan) 서비스라고 그래서 그런……

○李憲昇 위원 자기네들끼리 사고파는 게 팬 투 팬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서로 교환하고 이러는 것?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서비스 공간도 만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李憲昇 위원 그리고 스폰서 좌석, 스폰서들……

제가 물어보니까 좋은 좌석은 스폰서들이 다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좌석 배정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데, 이것 차별하는 이유가 뭡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우선 기업들이, 저희 조직위원회의 예산의 3분의 1이 기업 스폰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스폰서의 경우는 여러 면에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李憲昇 위원 한 1분만 더 주시렵니까? 안 그러면 추가추가 할까요?

○위원장 황영철 1분 더 드리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다음에 우리 비인기종목에 대한 단체 구매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그렇습니다.

○李憲昇 위원 강원도부지사님 나오셨어요?

○강원도행정부지사 송석두 예.

○李憲昇 위원 일부 지자체에서 국비나 도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지요? 지원해 주실 겁니까?

○강원도행정부지사 송석두 지금 도 자체에도 예산을 일부 편성해 놓고 시·군은 시·군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의 경우

에는요.

○李憲昇 위원 아니, 그 모자라는 것을 더 신청하려고 이렇게……

횡성군의 부단체장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건의했다고 그러는데, 건의받은 적 없습니까?

○강원도행정부지사 송석두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판매 상황을 봐 가면서, 저희 시·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전반적인 판매 상황을 좀 보면서 그런 것들이 추가로 지원이 필요하다면 저희 도뿐만이 아니고 중앙에도 적극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메워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강원도행정부지사 송석두 그렇습니다.

○李憲昇 위원 여유 있는 데도 있고 여유가 좀 부족한 데도 있는데 이것을 너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방적으로 구매 요청하는 것은 너무 또 실적주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조직위에서도 조금 감안을 해 가지고 잘 배분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행정부지사 송석두 예, 그렇게……

○李憲昇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철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김규환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김규환 위원 아까 묻던 것 계속 조금 더 묻겠습니다.

장관님께서도 꼭 들어 주십시오.

장관님, 우리 국민들 건강 생각하셔야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렇습니다.

○김규환 위원 버스 들어가는 길이 거기 외길이거든요. 나가는 것도 외길이고요. 40명 싣고 들어갈 때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뭐 천천히 이렇게, 일찍이 새벽 5시, 4시부터 들어간다고 그러면 뭐 충분히 되겠지요. 이게 5만 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40명씩 싣고, 나올 때는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 안전 생각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그것까지 다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 어떤 대책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일단 25개 노선에 한 650대가 운행을 하는데요.

○김규환 위원 650대라고 칩시다. 그러면 1000대를 해도 이게 4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650대면 몇 시간 걸려요? 8시간 걸리지요? 한꺼번에 쏟아지는데 8시간 동안 그것 실어 날라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시뮬레이션해서……

○김규환 위원 자, 그러면 그 계단이 내려오는 게 한 곳입니다. 올라와 가지고 한 군데로 나와요? 미끄러지면 연쇄사고 일어나거든요.

의사 확보 몇 명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인원수는 제가 아직, 몇 명인지는 제가 파악을……

○김규환 위원 저희들 다 이것 확인했거든요.

지금 의사들 거기 안 가요. 왜 가요? 의사들이 돈 벌지. 거기 갔다가 어떤 문제점 생기면 자기 책임인데 누가 그것 하겠어요?

몇 명 확인됐는지, 의사 수가. 특히 외과·내과·흉부외과 이 정도 몇 명이나 확보됐는지, 특히 어떤 사고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성형외과·피부과 빼놓고 몇 명 확보됐는지 의원실에 꼭 좀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김규환 위원 큰일 나는 거거든, 이게.

한 가지 더, 아까 했던 것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평창 읍내 들어가는 것도 평창이고, 올림픽 가는 것도 평창입니다. '휘닉스 평창'이 아니라 '올림픽 평창'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휘닉스'는 밑에 작은 글씨로 써도 찾아갈 수 있으니까 외국인들한테 '이게 올림픽으로 가는 길, 평창 길이구나', '읍내로 가는 평창 길이구나' 그 가는 길 그렇게, 방림에서 평창 들어가는 길도 그렇고……

그쪽이 제가 고향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아주 매우 답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 색깔도 생각해서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하나하나 체크해서 제가 또 이런 시간 외에도 별도로 질의를 하

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 내면 아이디어도 좀 보내고요. 그렇게 할 테니까 함께 공조하는 생각으로 하시고, 특히 이희범 위원장님 고생하시는 것 좀 많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위원님, 교통·의료·안전사고 이런 세세한 문제까지 하나하나 지적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셨는데요.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게 몇 개 있는데요.

응급의료센터나 의료센터 운영계획 있으시잖아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예, 있습니다.

○위원장 황영철 거기에 의료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의료진은 현장에도 배치가 되고요. 물론 앰뷸런스와 현지 의료시설, MRI를 포함해서 현지 의료시설도 설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설상 여기는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응급환자의 경우는 현장에서 조치하지만 원주기독교병원이라든지 원주 세브란스병원, 또 강릉에도 지금 병원들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위원장 황영철 다른 것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김규환 위원님이 현장에서의 응급의료조치가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평창의 의료센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세히 한번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현장에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무실이 전체 60개소가 설치가 됩니다.

○김규환 위원 그거 몇 페이지입니까? 몇 페이지예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저희 조직위원회 현안자료 23쪽입니다.

경기장에 40개, 비경기장에 20개를 구축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또 필요하면 자료로……

○위원장 황영철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올림픽 기간 중에 걱정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를 또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최명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Pyeongchang'과 'Pyongyang'을 혼동해서 쓰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아까 최명길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그 사이트의 날짜를 보니까 최근이에요. 그것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됐나요, 아니면 오늘도 그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건가요, 똑같은 내용으로?

○최명길 위원 안 고쳐졌어요.

○위원장 황영철 지금 그러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해외언론 홍보 모니터를 하고, 거기에 또 해외언론 홍보와 관련된 용역을 줘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폭스 같은 주요한 언론에서 평창과 평양을 혼용해서 쓰고 있고, 그것이 아직까지도 고쳐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은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오늘 최명길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전체적인 것을 한번 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철 어디에서 해요? 누가 책임이에요, 이것은?

문광부에서 해야 됩니까, 조직위에서 해야 됩니까, 강원도에서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평창을 홍보하면서 일부러 평화와 번영의 도시, 평화와 번창의 도시로, 이런 혼동 때문에……

○위원장 황영철 아니, 해외언론 홍보와 관련된 그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저희가 통합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철 그러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통합해서.

○위원장 황영철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해외 홍보에 180억을 배정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알리는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철 예, 알겠습니다.

개막식 당일 날 여러 가지 방한대책이 있는데 방한장비 중에 모자는 없습니까? 모자는 검토 안 하셨나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희범 모자도 나눠 주는 것을 검토

하고 있는데요. 결국 비용 대 효과의 문제입니다. 모자도 필요하고 사실 부스도 필요합니다. 저희들 아까 드린 것은 담요하고 핫팩하고 이런 것을 공급하는데 모자까지 하려니까 모자 하나가 2만원이 넘는다고 그래서 비용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영철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춥다는 것을 계속 알릴 거거든요, 국민들에게. 그리고 지붕이 없는 노천 개막식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국민들에게 추위 대책에 대한 홍보를 하는 동안 국민들이 스스로 개인적으로도 아마 여러 가지 방한대책을 마련해서 오게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현장에서 나눠……

○위원장 황영철 저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물론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우비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것도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황영철 여기도 지금 미리 이런 우비를 이렇게 준비하는 것 대비 모자 같은 경우는 평창과 관련돼서 이런 개막식의 방한대책을 떠나서도 여기 참석한 분들이 다 모자 쓰고 다니실 거거든요. 홍보효과도 겸해서, 다른 부분들은 개회식장 이후에는 별로 이렇게 안 쓸 것 같은데 모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철 지난번에도 다른 행사 때 가니까 모자는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오늘 오랜만에 특위를 개최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도 많고 또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많은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좋은 대회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들이 또 차후에 여러 가지 현안들을 지켜보다가 특위가 필요하면 회의를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금요일인 이유는 다른 주요 상임위들이 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중심으로 모든 회의들이 잡혀져 있고, 특위를 회의를 잡아서 회의한다는 것이 굉장히 시간상으로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일정상 쉽지 않아서 이렇게 금요일 날 오전에 잡아서 회의를 하게 됐는데, 지금은 많이 나가셨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 참석하셔서 한 번씩 질의를 해 주고 가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차후에 또 우리 특위가 끝까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말씀 잘 귀담아들어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많은 부분을 참 쓴 소리도 하고 싶고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많은 것을 참으면서 우리 정부부처와 조직위와 또 강원도가 힘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를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많이 좀 참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이 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 동계올림픽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여러 가지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함께 해 오고 그랬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제가 느끼는 많은 아쉬움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참 깊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질의를 못 하시고 서면질의를 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철규 위원님, 민병두 위원님께서 서면질의 해 주셨고요. 또 질의해 주신 심기준 위원님과 최명길 위원님도 추가로 서면질의 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종환 장관님, 강원도의 행정부지사님,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님,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 전문위원과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고 용 진	권 성 동	김 관 영	김 규 환
김 기 선	민 병 두	송 기 헌	심 기 준
염 동 열	유 은 혜	이 동 섭	이 은 재
이 찬 열	이 철 규	이 헌 승	최 명 길
황 영 철			

○청가 위원(1인)

민 홍 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 재 룡
전 문 위 원	박 용 수
전 문 위 원	김 건 오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장 관	도 종 환
체 육 국 장	오 영 우

강원도

행정부지사	송 석 두
올림픽운영국장	최 명 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조직위원회

위 원 장	이 희 범
기획총무국장	김 현 기
재 정 국 장	전 형 식
홍 보 국 장	김 대 균
문화행사국장	김 대 현
마케팅국장	엄 찬 왕
시 설 국 장	손 창 환
베뉴운영국장	윤 순 근

【보고사항】

○위원 사임 및 보임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박완주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2017. 7. 11.